

논문접수일 : 2013.09.19

심사일 : 2013.10.06

게재확정일 : 2013.10.25

인도 민속미술 'Rangoli'의 도상적 표현과 특성

Iconic Representation and Characteristic of India Folk Art 'Rangoli'

이 노 미

성균관대학교 디자인 사이언스 연구소

Lee No-Mi

Sungkyunkwan University

* 본 논문은 20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연구결과임

1. 서론

2. 랑골리의 이론적 고찰

- 2.1. 랑골리의 개념
- 2.2. 랑골리의 기능
- 2.3. 랑골리의 유래

3. 랑골리의 도상적 표현과 상징성

- 3.1. 랑골리의 형태
- 3.2. 랑골리의 색상
- 3.3. 랑골리의 문양

4. 랑골리 도상의 특성 분석

- 4.1. 힌두사상의 종교적 상징성
- 4.2. 시·공간과 성(性)적 제한성
- 4.3. 서민예술의 대중성과 자연 친화성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인도의 전통 민속미술인 '랑골리'의 이론적 정초를 통해 랑골리의 도상적 표현과 상징성을 밝힘으로써 랑골리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랑골리는 인도여성들이 집 대문 앞이나 거실 바닥에 흰 쌀가루로 도안을 그린 후 그 안에 색색의 염료로 물들인 가루를 채워 넣는 인도 전통의 민속미술로 가정의 안정과 복을 기원하는 성스러운 종교적 도상을 뜻한다. 우주만물의 원리를 도상화한 랑골리는 영적 진화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 실재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아와 우주가 하나됨을 깨달을 수 있는 명상도상으로 생명존중의 힌두사상이 반영된 종교예술의 표본이다. 약 5천여 년 전에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랑골리는 신과 인간관계의 동일성을 반영한 점과 선을 잇는 대칭구조의 무한한 패턴이 가능한 특성을 보인다. 즉 균형은 랑골리의 중요한 핵심으로 이는 힌두사상에서 우주의 균형을 상징하며 우주본질의 무한성과 신들의 영원성을 상징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신의 현현 또는 신의 현존으로 인식되는 랑골리의 도상적 표현과 상징성을 분석함으로써 랑골리는 힌두사상의 종교적 상징을 함축함과 동시에 시공간과 성(性)적 제한성, 서민예술의 대중성, 자연친화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

한 랑골리는 집중력과 인내심, 상상력을 동반한 창의적 미술 감각은 물론 과학, 수리적 사고력이 함께 동반되는 힐링 아트(healing art)의 창작예술교육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의는 그동안 국내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랑골리에 대한 독창적 연구로 랑골리의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였다는데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주제어

랑골리, 꼴람, 인도 민속미술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Rangoli", a traditional folk art of India, by revealing the iconic expression and symbolic nature of Rangoli through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Rangoli. As folk art whereby Indian women make a drawing with white rice powder on the floor in front of a gate or of living room and fill the drawing with powders dyed with colorful pigments, Rangoli is a religious icon to wish peace and blessings on a family. Rangoli, which symbolizes the laws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is a contemplative icon through which we are able to realize the unity of the self and the universe by enabling us to experience a fundamental existence through the process of spiritual evolution. This is also a sample of religious art that reflects the respect of life in the Hindu ideology. Consequent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conic characteristics of Rangoli, Rangoli was discovered to imply the religious symbolic nature of the Hindu ideology and at the same time to have spatiotemporal and sexual limitations, the popularity of folk art, and nature-friendly characteristics. Accordingly, as an original study on Rangoli, this discussion will be meaningful in furnishing a theoretical key to Rangoli.

Keyword

Rangoli, Kolam, India Folk Art

1. 서론

인도의 힌두교는 미완의 종교이자 도상의 종교이다. 인도인들에게 힌두교는 인도인의 삶 전체를 통괄하는 하나의 거대한 삶의 방식이며, 신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종교미술은 신과의 교감을 위한 종교수행의 일종이다. 특히 우주만물의 원리를 도상화한 랑골리(Rangoli)는 신을 맞이하기 위한 인도 특유의 민속미술로 그들이 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상징화하는 종교적 표현이다. 힌두사상이 반영된 랑골리는 다양한 패턴과 화려한 색상의 기하학적 디자인으로 인도 여성들의 손끝을 통해 세대를 이어 오늘날까지 매일 아침 집 대문 바닥에 끊임없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이롭기 이를 데 없으며 세계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통 민속미술의 독창성을 지닌다.

주지하다시피 랑골리를 통해 인도 민속미술의 진수를 규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랑골리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다문화사회의 유입과 더불어 국내 일부 매체에서 인도문화 이해의 일부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랑골리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 것도 이와 관련되므로 랑골리의 개념적 범주와 특성을 보다 명확히 추동해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인도 종교미술의 전통적 미의식과 종교적 가치관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랑골리의 도상적 표현과 특성을 정확히 꿰뚫어보아야 하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랑골리에 대한 새로운 조망은 관련 논의에 활기를 불러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논의는 인도의 전통 민속미술인 랑골리의 이론적 정초를 통해 랑골리의 도상적 표현과 상징성을 밝힘으로써 랑골리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랑골리의 모호한 개념과 유래, 기원 등의 연원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랑골리의 형태와 색상, 문양의 도상적 표현과 이와 관련된 힌두교의 종교적 상징성을 순차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한 랑골리의 도상적 특성을 마지막 장에서 매듭지을 것이다. 이러한 인도 민속미술인 랑골리에 대한 도상적 연구는 랑골리의 불명확한 국내 인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수 있는 학적 패러다임의 이론적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Rangoli의 이론적 고찰

2.1. 랑골리의 개념

인도 민속미술의 상징이기도 한 랑골리는 인도여성들이 각 가정의 대문 앞, 안뜰, 거실 등의 바닥에 쌀가루로 복(福)을 기원하며 그린 성스러운 형태의 종교적 도상을 뜻한다.(Siromoney & Krithivasan, 1972)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형태의 하나인 랑골리는 산스크리트어 '랑가발리(rangaavalli)'에서 유래한 어원으로 'rang'은 '색상(color)'의 의미이며 'aavalli'는 'row of colors(색의 배열)' 혹은 '색 넝쿨(colored creepers)'의 뜻을 지닌다.(CulturalIndia, 2013)

하지만 인도의 행정적 특성상 28개주(州)의 공용어가 무려 18개인 까닭에 랑골리는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호칭으로 불린다. 인도 남부의 타밀 나두(Tamil Nadu)지역에서는 타밀어로 '꼴람(kolam)'이라 불리며 안도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에서는 '무글루(Muggulu)' 혹은 '무구(Muggu)', 라자스탄(Rajasthan)에서는 '만다나(Mandana)'로 일컬어진다. 또한 북인도에서는 '초크푸라나(Chowkpurna)', 우타 프라데시(Uttar Pradesh)에서는 '초크 푸잔(Chowk pujan)'으로 명명된다. 서벵골(West Bengal) 지역에서는 '알파나(Alpana)' 혹은 '알포나(alpona)', 비하르(Bihar)에서는 '아리파나(Aripaana)'라는 명칭을 지닌다.(Rediff News, 2007)

일반적으로 '랑골리'는 주로 구자라트(Gujarat)와 카르나타카(Karnataka),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의 서인도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명칭인 반면 남인도에서는 '꼴람', 동인도 지역에서는 '알파나'로 불리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랑골리는 꼴람과 알파나 등을 모두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인도 전역에서 쌀가루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민속미술의 공용어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랑골리와 꼴람이 점차 구분되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꼴람은 남부 타밀 나두지역에서 매일 아침 대문 앞에 그려지는 일상적인 민속미술의 양식을 취하는 반면 랑골리는 대도시에서 축제와 결혼식, 주요의식이나 행사, 종교집회 등 특별히 경사스러운 날에 힌두사원이나 집안 거실 바닥과 벽에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꼴람이 고유의 전통양식을 유지하며 보다 강한 종교적 색채의 도상을 지니는 반면 랑골리는 재료의 간소화와 일회용 스티커 등의 현대적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그림이 자유롭게 그려지는 차별화를 지닌다. 따라서 랑골리와 꼴람이 따로 분리되어 사용되거나 함께 혼용되지만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풀람을 랑고리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랑고리는 '풀람과 알파나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바닥에 흰쌀가루로 도안을 그리고 그 안에 색 가루를 채워 넣는 화려한 색의 향연을 지닌 인도의 전통 민속미술로 가정의 안정과 복을 기원하는 종교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림 1] 랑고리를 그리는 인도여성(kwikdeko.2013)

2.2. 랑고리의 기능

인도예술은 종교적인 또는 의례적인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힌두 신들을 숭배하거나 사악한 악령의 불경스러운 힘을 몰아냄으로써 성스러운 힘의 에너지를 집적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바닥에 흰 쌀가루로 문양을 그리는 독특한 양식의 랑고리는 힌두교인들에 의해 신들이 땅으로 내려올 때 발을 디뎠던 받침대로 신봉된다.(연합뉴스, 2013) 이른바 랑고리는 신의 축복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가족의 건강과 행운, 번성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다산(多産)의 신으로 부(富)와 미(美), 행운의 여신이기도 한 '락슈미(Rakshmie)'를 초대하여 악운과 악령을 물리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닌다. 특히 한 해 추수를 기념하고 자연에게 감사하기 위해 빛의 수호신인 락슈미에게 봉헌되는 디왈리(Diwali) 축제와 타밀지역의 풍갈(Pongal) 축제기간에 그려지는 랑고리는 락슈미 신을 위한 종교적 의례의 기능을 지닌다.

인도의 힌두여성들이 락슈미 여신을 경배하며 랑고리를 그리는 숭고한 행위는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하는 자연의 원리, 그 자체로 신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명상수행과 다름 아니다. 즉 랑고리는 생명의 원리와 자아가 점진적으로 합일하게 되는 사다나(Sadhana)를 공유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아와 우주가 하나 됨을 깨달을 수 있는 종교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산스크리트어 문헌에는 '실재의 진정한 본성을 밝혀내려 할 때 마음속에 그려보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상은 집중된 상태에서 시각화되는 최고의 형상으로 명상과 함께 의례를 진행시킬 때 더욱 더 지고의 도형을 경험하게 된

다는 것이다.(Mookerjee, 1995)

이와 관련하여 힌두교에서 명상을 위해 성스러운 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하학적 도형인 안트라(Yantra) 또한 '스리(shri)'로 일컬어지는 락슈미 여신의 상징과 다를 바 없다.(Keilhauer & Anneliese, 1994) 소우주와 대우주의 본질적인 동일성과 초월세계, 경험세계의 합일성에 대한 명상을 위해 성스러운 힘을 나타내는 안트라는 우주 파동의 심층적 근원의 소리인 만트라(Mantra)가 도형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안트라는 대표적인 시각명상으로 다양한 타트바(tattvas) 즉 신의 원소, 신의 다양한 측면, 신의 힘을 나타낸다.(Lal, 2005) 다시 말해 안트라는 명상 만트라의 시각적 형태이며 수행자가 영적 진화의 과정들을 거쳐 궁극적 실재를 체험하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명상을 위한 신비적 도형인 안트라가 민간신앙 속에서 변형되고 간단해진 형상이 다름 아닌 랑고리이다.(Keilhauer & Anneliese, 1994) 따라서 안트라의 힌두사상이 그대로 반영된 랑고리는 종교 수행인 명상도상으로서의 기능을 지니며 신의 현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랑고리를 그리는 쌀가루는 대지의 모신(母神)이자 '농업의 신'인 락슈미에 대한 '공물'인 동시에 쌀가루를 먹으려고 모여드는 개미와 곤충, 새 등 집안에 찾아드는 모든 존재를 환영하기 위한 '보시'이자 '초대'의 기능을 지닌다. 여기에는 인간과 함께 공생하는 작은 생물에 대한 생명존중의 경의심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길조의 상징'인 랑고리는 신들을 초대하기 위한 신성한 영역의 상서로운 명상도상으로 생명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힌두사상이 반영된 대중 종교예술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2.3. 랑고리의 유래

종교예술과 장식예술로서의 이중적 기능을 지닌 랑고리의 기원은 약 5천여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랑고리를 '풀람'이라 부르는 남인도의 타밀지역에서는 16세기~17세기의 문학작품인 『마두라이 메나크시암마이 쿠람(Madurai Meenakshiammai Kuram)』과 『씨루 쿠드라알라 쿠라반지(Thiru Kutraala Kuravanji)』에서 처음으로 풀람의 민속미술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남인도에서 랑고리가 보급된 것은 약 600년 전으로 파악하고 있다.(Siromoney, G. et al, 1973)

일반적으로 랑고리의 민속미술은 대서사문헌인 『베다(Vedic)』와 『마하바라타(Mahabharata)』, 『바

가나트 푸라나(Bhagavat Puranas)』에서 고루 언급되고 있다. 『베다』에서는 락슈미 여신이 비슈누(Visnu) 신과 결혼할 당시 바닥에 랑골리가 그려져 있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마하바라타』에는 크리슈나(Krsna) 신이 전쟁에서 귀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신봉하는 제사 비두라(Vidura)가 환영의 의미로 랑골리를 그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바가나트 푸라나』에서는 소를 돌보는 아름다운 목동처녀인 고프(gopis)들이 크리슈나와 헤어진 고통을 잊기 위해 바닥에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진다.(Harekrsna, 2011)

한편 베다예술의 초기문헌인 『치트랄라크사나(Chitralakshana)』에 의하면 최초의 랑골리는 창조의 신인 브라마(Brahma)가 첫 선을 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브라마 신을 숭배하던 성직자인 아키엔치안(Akieanchian)왕의 아들이 죽자 많은 이들이 브라마에게 그를 살려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렸으며 이에 감동한 브라마가 왕에게 땅바닥에 그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명한 뒤 완성된 초상화에 공기를 불어넣자 그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다. 또한 악마가 아름다운 우라바시 카하라이(Urvashi Kaahalai) 여신을 해치려하자 천상의 신들이 나무즙을 짜 바닥에 아름다운 여자 형상을 그려 넣음으로써 악마의 눈을 속였다는 기록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아키엔치안(Akieanchian)왕 이후 많은 통치자들이 신에 대한 봉헌의 의미로 랑골리를 장려함으로써 왕조의 번영과 함께 랑골리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특히 9~13세기 출라(Chola)왕조에 이르러 랑골리의 주재료인 쌀가루에 모래를 섞어 넣음으로써 빈곤계층까지 랑골리가 확산되어 랑골리가 대중적인 종교예술로 승화하는데 기여하였다.(Selvamony, 2006)

이처럼 힌두신화에 기원을 둔 랑골리가 오랜 세월을 지나 오늘날까지 꾸준히 계승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인도인들에게 랑골리는 신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 삶의 주요한 원천임을 알 수 있다. 신을 위한 명상과 기도 나아가 가족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인도여성들의 간절한 마음과 정성이 다양한 형태의 랑골리로 표현되어 시대와 사회적 계층을 초월해 지속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3. 랑골리의 도상적 표현과 상징성

3.1. 랑골리의 형태

랑골리는 신과 인간과의 직접적인 관계의 동일성을 고려하여 점과 선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형태로 구성된다. 랑골리를 그리는 숭배자의 마음에 있는 성스러운 영감을 고양시키고 모든 미적 감각이 손끝

을 통해 한데 어우러지도록 점과 선은 '명상의 매듭'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랑골리는 기본적으로 특정 순서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점과 점 사이를 잇거나 혹은 점을 직선이나 곡선으로 에워싸는 방식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기하학적 패턴을 접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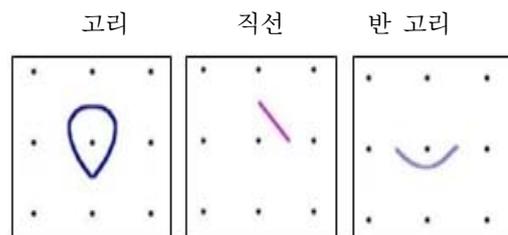
수많은 점을 직선이나 곡선으로 잇는 랑골리 패턴은 알고리즘(algorithm)에 의해 일정한 규칙을 지닌다. 랑골리를 그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랑골리를 그릴 바닥을 힌두교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소똥과 물로 깨끗이 정화한 후 바닥에 도트 격자를 열과 행에 맞추어 마음모나 사각형, 육각형의 다각형구조로 배치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랑골리는 4~108개의 점으로 구성되며(Indiatoday, 2012) 도트는 3-3 혹은 4-4 등으로 열과 행이 동일한 형태나 혹은 11-9-7-5-3 등과 같이 가운데 행을 중심으로 도트를 마지막 행까지 차례로 줄여나가는 방식의 대칭구조를 이루며 배치된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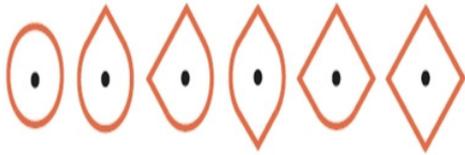
[그림 2] 랑골리의 도트 배치(kamat, 2013)

그런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으로 점을 잇는 드로잉이 배치된 행의 점을 따라 고리나 반고리, 직선으로 부드럽게 잇거나 교차하는 방식으로 그려진다.[그림 3]

도트를 에워싸는 방식은 [그림 4]와 같이 6가지의 기본패턴으로 구성되며 점과 점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혼합, 절충되는 형태를 취한다. 점과 선을 그릴 때에는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로 쌀가루를 문질러 뿌리는 방식으로 랑골리 패턴을 구성해 나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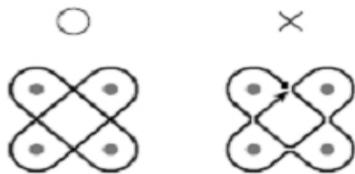


[그림 3] 랑골리의 기본 라인



[그림 4] 도트 격자의 6가지 기본패턴
(Yanagisawa & Nagata, 2007)

이러한 요소와 규칙에 의해 드로잉을 시작한 위치로 되돌아올 때까지 고리와 반고리, 직선이 지그재그 방향으로 반복되어 유연하게 이어진다. 무엇보다도 도트격자의 상단 중앙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점 주위를 수평 고리로 연결하여 드로잉을 시작하는 방식이 가장 수월하다. 선을 그릴 때에는 항상 마무리 선이 닫혀 있도록 전체 패턴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집안 내부에 들어오는 악령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림 5] 랑골리의 마무리 라인
(Yanagisawa & Nagata, 2007)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색색의 분말가루를 문양 안에 채워 넣음으로써 랑골리를 완성한다.

열 행	1- 도트 배치	2- 도트 선 잇기	3- 컬러가루 뿌려 완성
6 6			
13 7			
16 16			
21 11			

[표 1] 랑골리의 도상과정(kolangal, 2013)

랑골리는 도트의 열과 행을 잇는 선에 따라 무한

패턴이 가능하며 이는 우주 본질의 무한성과 신들의 영원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랑골리 디자인은 끝없이 순환반복되는 윤회의 시간적 개념과 타트바(tattvas)의 도상인 안트라를 의미하는 원형패턴이 널리 애용되고 있다.

아울러 4~108개의 다양한 도트 패턴을 열과 행을 맞추어 수리적으로 배치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랑골리 문양을 형상화하기 위해 도트를 고리와 반고리, 직선을 이용해 대칭구조의 형태로 이어나가는 작업은 상당한 집중력과 함께 수리적 사고력이 함께 요구되는 매우 정교한 작업이다. 더욱이 랑골리 문양은 신을 위한 다양한 도상의 형태로 힌두교의 주요 색상과 조화를 이루어야하므로 상당한 수준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동반되어야 할뿐 아니라 아침부터 이루어지는 장시간의 작업으로 인한 인내심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예술작업이다. 때문에 종교적, 의례적 특성의 랑골리는 감각적인 미적활동의 수행과 더불어 수리적, 과학적 사고력을 함양시킬 뿐 아니라 결단력을 필요로 하는 지적탐구의 과정으로 정서를 순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우리나라 일부 박물관과 미술관을 중심으로 창의인성 미술교육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3)

3.2. 랑골리의 색상

랑골리는 '색의 배열'이라는 본래의 의미대로 대담함과 무제한적 다양성을 지닌 화려한 색채로 구성된다. 종교적 상징과 밀접하게 연결된 랑골리의 색채는 강렬하고 밝은 것이 특징이다. 힌두교에서는 흰색과 주황색, 붉은 색이 주요색으로 인식됨에 따라 랑골리에서도 이러한 삼색이 기본을 이룬다. 그밖에 파랑과 노랑, 녹색, 분홍색이 주조색으로 사용되며 흰색 가루와 다른 색상의 가루를 섞어 혼합색을 만들거나 명도와 채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다.

무엇보다 랑골리의 밑바탕이 되는 흰색은 순수하고 청결한 영적 깨달음과 성성(聖性)을 의미하는 색으로 지혜와 지식, 진리와 평화를 상징한다.

흰색 바탕에 다양한 색상의 분말가루를 채워 넣음으로써 랑골리를 보다 다채롭게 만들 색채들은 힌두교의 신과 관련되어 성스러움 그 자체로의 상징성을 지닌다. 이를테면 빨강은 부와 행운의 여신인 '락슈미'를 대표하는 샷티(여성)의 색으로 힘과 권력의 생명성과 창조성을 뜻한다.(Lal, 2005) 그러므로 빛의 축제인 디왈리나 특별한 의식인 뿌자(Puja)에는 락슈미신을 위해 랑골리를 붉은 색으로 표현한다. 힌두의 색으로 알려진 주홍색은 세계를 파괴하여 새로운 세

계를 위한 속죄와 정화의 뜻이 담긴 불의 신 '아그니(Agni)'의 색이다. 온갖 번뇌와 욕망, 카르마를 태워 버리는 주홍색은 수행과 고행의 정신적 정화의 뜻이 담긴 종교적 절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삼색 외에 랑골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색은 힌두인들에게 용감하고 견고하며 상스러운 색으로 알려진 파랑색이다. 파랑색은 악과 싸워 인간을 보호하는 '시바(Shiva)'와 '크리슈나', '라마(rama)' 신을 상징하는 남성의 색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노랑은 우주의 유지자인 보존의 신 '비슈누'의 색으로 정신을 고취하는 침잠과 평화의 색이다.(Scholz, 2007) 분홍색은 죽음과 파괴의 여신 '칼리(Kali)'의 상징 색으로 모성과 여성의 부드러움을 표현한다.(박미성, 2008) 녹색은 싱그러운 자연을 의미하며 정신적 조화와 안정을 뜻한다.

모든 랑골리가 반드시 이러한 색채의 종교적 상징성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랑골리의 화려한 색의 향연은 우주의 올바른 균형과 조화를 가리키며 영원한 실재에 대한 헌신과 통찰력을 강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림 6] 랑골리 칼라가루와 손으로 선 곳기 모습 (Rangoliworld, 2013)

3.3. 랑골리의 문양

랑골리의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종교적이고 심미적인 요소로 상징화되어 힌두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양식이다.

대부분의 문양은 인도인들이 숭배하는 힌두교의 주요 신과 힌두사상을 상징화한 기호학적 도형 혹은 신화적 존재나 동식물로 구성된다. 이들 모두는 재앙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오는 랑골리의 상징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상서로운 상징을 랑골리에서는 '우츄드헤르미타(Utswdhermita)'라고 한다.

랑골리의 대표적 문양은 축복과 다산성을 가져오는 행운의 상징으로 고대에서부터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문양인 스와스티커(卐)이다. '행운을 인도하다'는 산스크리트어 '스바스티카'(svastika)'에서 유래한 스와스티커는 태양과 생명의 나무씨앗을 형상화한 것으로 '생명'과 '중심'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우주의 근원으로써 명상수단의 하나인 음(om, A-U-M) 문양은 우주를 지배하는 신들의 삼현(三顯)을 나타내는 까닭에 랑골리 도상으로 자주 표현된다. 즉 A는 창조의 신 '브라만', U는 보존의 신 '비슈누', M은 파괴의 신 '시바'가 각각 결합된 삼신 일체(trimurti)는 명상수행에서 숨을 내쉴 때 표현되는 근본음절로 위대한 신들의 삼원리(三原理)로 도상화되고 있다. 그 밖에 랑골리를 구성하는 주요도형으로는 삼지창과 수레바퀴, 물병, 거울이 있다. 삼지창은 우주 근본원질의 세 가지 원리가 현상세계에 작용하는 것을 표현하며 수레바퀴는 태양과 우주의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뜻한다. 가득찬 물병인 '칼라샤(kalasha)'는 삶의 충만을 상징하며 '다르빠나(darpana)'로 일컬어지는 거울은 아름다움과 세계의 환성(maya)을 함축한다.

랑골리			
문양	스와스티커 생명, 중심	음 삼현(三顯)	수레바퀴 우주질서, 법칙
랑골리			
문양	물병 삶의 충만	연꽃 탄생, 번영, 부	나무 생명, 다산, 깨달음
랑골리			
문양	백조 청정, 재생	공작 사랑, 열정, 구애	앵무새 사랑, 장렬, 구혼
랑골리			
문양	땀 생명, 다산, 영원	코끼리 선, 미덕, 다산	물고기 영혼의 자유

[표 2] 랑골리 문양과 상징성(Ikolam, 2013)

인도인들은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동식물을 신성시하여 신격화함으로써 이를 랑골리 문양으로 도상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테면 생명의 나무와 꽃, 잎, 덩굴들이 모두 한꺼번에 뒤섞인 문양을 '칼가(kalga)'로 명명하는데 이러한 꽃의 덩굴과 나뭇가지 덩굴 등의 식물문양은 풍만한 삶의 힘인 생명력을 상징한다.(Keilhauer & Anneliese, 1994)

특히 레몬꽃과 호박꽃은 신에게 바치는 대표적인 봉헌물이다.(Lyntion, 1995) 연화좌에 앉아 연꽃을 들고 있는 연꽃의 신 락슈미 신을 대표하는 연꽃문양은

진흙에서 솟아오르는 까닭에 생명력의 상징으로 탄생과 번영, 부(富)를 뜻한다. 이 때문에 락슈미 신은 '연꽃의 신'이라는 별칭으로 '파드마(Padma)' 혹은 '카말라(Kamala)'라고 불리며 랑골리의 흰 연꽃은 재생 또는 탄생을 나타냄으로써 랑골리의 주요소재로 재현된다. 나무 또한 창조의 주축으로 생명과 다산, 깨달음과 보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김난희, 2012)

한편 랑골리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격화된 동물문양으로는 '미나(mina)'라 불리는 물고기가 있다. 이는 창조의 신 '비슈누'의 첫 번째 현신 마트스야(Matsya)로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난 영혼의 자유를 뜻한다. 코끼리는 온순하고 순종적이어서 선과 미덕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늘의 물을 내뿜는 우주의 운반자이며 유지자로 다산성의 상징이다. 백조는 자유롭고 청정한 영혼과 정신적 재생을 뜻하며 뱀은 '시바' 신의 상징으로 어떤 유혹이나 욕망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며(하진희, 2010) 최초의 피조물이자 생명 에너지의 현현으로 윤회와 함께 영원한 우주의 시간을 뜻한다.

그 외 동물문양으로는 사랑과 정열, 구애를 상징하는 공작과 앵무새를 비롯하여 우주와 시간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거북, 하늘과 땅의 결합을 통해 다산성을 뜻하는 암소와 황소, 동물과 모든 생물의 주인인 시바 신을 상징하는 사슴 등의 다양한 문양이 랑골리의 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숭배대상을 도상화한 랑골리 문양에는 자연과의 깊은 교감이 조화롭게 스며들어 있다.

4. 랑골리 도상의 특성 분석

4.1. 힌두사상의 종교적 상징성

랑골리는 인도인들에게 신성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로 랑골리를 그리는 작업 그 자체가 하나의 봉헌으로 신을 향한 자아를 신성하게 하는 실천적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즉 인도인의 대부분 삶이 힌두철학에서 기인하듯이 랑골리의 도상 또한 신의 현현, 신의 현존으로 인식됨으로써 랑골리를 준비하는 모든 단계는 힌두철학의 다양한 사상과 함께 신성화된다.

예컨대 랑골리는 여러 개의 점(dots)을 이어 반드시 대칭구조의 균형적인 문양을 그려야 하는데 '균형'은 랑골리의 중요한 핵심으로 이는 힌두사상에서 우주의 균형을 상징한다. 즉 동서남북과 중앙이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세계의 표현이다. 랑골리에 그려지는 둥근 형태의 원은 하늘의 우주로 우주에너지의 율동적이며 주기적인 수축과 팽창을 나타낸다. 랑골리의 토대로 그려지는 네모난 삼각형은 전 우주공간의 전

체성으로 땅의 물질성을 의미한다. 삼각형은 순수한 대의식이 전개되는 외향적인 운동의 첫 단계로 창조적 에너지의 모체를 상징하며 인간의 정신을 뜻한다.

전통적인 랑골리의 주요요소는 점과 선, 원, 사각형, 삼각형, 연꽃무늬로 그 중에서도 점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같은 랑골리 구성의 기본요소인 '점'은 '빈두(bindu)'로 불리며 이는 우주 에테르의 씨앗으로 우주 절대자의 본원적 합일에 유래하여 그것으로부터 대극적인 힘으로 이루어진 현상세계가 전개된다. '빈두'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사, 회수하며 일체의 포용하는 무한한 에너지와 의식의 저장소로 궁극적 통일의 상징성을 지닌다. 이 점으로부터 신격화된 우주적 에너지가 남성적 또는 여성적 원리로 나누어지며 계속 분할된다. 남성적·여성적 원리는 각각 위로 향한 삼각형(trikona)과 밑으로 향한 역삼각형으로 결합되어 있다. 위로 향한 삼각형은 남성의 상징으로 링가(남근)와 하늘, 태양, 황소를 뜻하는 정적 활동의 '순수정신(purusha)'을 나타낸다. 반면 역삼각형은 자연과 동적활동의 '근본물질(prakritie)'로 여성과 요니(자궁), 땅, 달, 암소를 의미한다. 위로 향한 삼각형과 아래로 향한 역삼각형의 대극적 합일은 정적인 순수정신과 동적인 근본물질의 결합으로 정신과 물질, 초월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의 합일을 뜻한다. 초월적인 세계와 현상적인 세계와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랑골리를 통한 명상은 높은 영혼의 경지로 이끌며 최종적으로 절대자와의 합일에 도달하게 된다. 이처럼 대극성의 합일에 대한 힌두사상의 구상적 또는 추상적인 표현은 랑골리의 모든 형태를 지배하고 있다.(Keilhauer & Anneliese, 1994)

요약하자면 랑골리의 모든 요소들은 힌두사상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 대우주와 소우주를 진화시키고 다스리는 에너지의 역동성을 상징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는 우주형상을 그린 랑골리는 자그마한 한 점으로부터 우주가 형성되는 과정을 쌀가루로 도상화하거나 혹은 완성된 랑골리 도상으로부터 점차 축소되어 태초의 자그마한 점으로 회귀되는 과정을 명상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원초적 에너지로 충만해진다는 힌두사상의 종교적 실천과 다르지 않다.

4.2. 시·공간과 성(性)적 제한성

랑골리는 쌀가루나 모래가루를 이용해 바닥에 그리는 그림으로 보존이 불가능한 일회성 민속미술의 독창성을 지닌다. 건식과 습식방식의 두 가지 유형을 지닌 랑골리는 지나가는 행인에 밟히거나 비와 바람

에 날리어 쉽게 지워지는 특성이 있다. 이는 모든 사물과 인간의 유한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일아침 해 뜨기 전에 새로운 랑골리가 만들어지며 축제와 명절, 의식 등 특별히 경사스런 날에 랑골리가 그려지는 시·공간적 제한성을 지닌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특이한 랑골리의 고유한 특성은 여성들만이 랑골리를 그릴 수 있다는 성(性)적 제한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랑골리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 락슈미 여신과 가족, 방문객, 거리의 보행자와 생명체 모두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발로로 이들을 서로 매개하는 역할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만 부여된 특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여성들은 6살부터 어머니와 주변친지, 이웃여성들로부터 랑골리 패턴의 기술습득을 위한 훈련을 받는다.(Siromoney, G. et al., 1972) 대부분의 인도여성들은 평생 15,000~20,000여개의 랑골리를 그리며 랑골리를 습득할 초기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 태양의 빛으로 밝힌 랑골리를 통해 하늘의 락슈미 여신을 집안으로 맞이할 준비를 한다. 랑골리 기술은 신성한 종교적 태도와 손재주를 통한 미적 감각의 훈련과 학습의 결과로 여성들은 랑골리를 그리기 위해 허리와 무릎을 구부려야하는데 이러한 '육체의 구부림'은 힌두교에서의 '겸허함'을 뜻한다. 다양한 디자인의 랑골리는 세대를 이어 세습되어지며 랑골리를 그리는 것은 평온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즉 다르마(dharma)로 규정된다. 힌두인들에게 가족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인생의 최종목표인 '무크티(解脫)'에 이르는 길로 가족 구성원들은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각자의 다르마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가족의 통일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유대의 역할을 담당하며 딸, 아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통해 가족 일체감의 자부심과 존엄심의 다르마를 갖는다. 여성들은 스스로에게 부여된 다르마를 통해 도덕의식의 욕망을 자제하여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조화의 보편을 추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도 여성은 복종적이며 유순해야하며 이러한 고유의 다르마를 잘 수행하면 선(善)을 행하게 되지만 이를 등한시하면 악을 행하여 카르마를 쌓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도여성들이 가장 숭배하는 여신은 집안을 부유하게 일으키는 부와 번영, 행운, 다산성, 풍요와 함께 성공을 가져다주며 남편인 보존의 신 비슈누를 잘 공경하는 미의 여신 '락슈미' 인 것이다. 한마디로 랑골리는 락슈미 신을 통해 가족의 안녕과 복을 염원하는 힌두여성들의 다르마로 육체적, 정신적 수양을 위한 종교적 실천인 것이다.

4.3. 서민예술의 대중성과 자연 친화성

랑골리는 종교적인 또는 의례적인 고유성과 함께 서민예술로서의 대중적 특성을 지닌다. 이는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랑골리의 재료들에서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랑골리를 만들기 위한 주재료들은 쌀가루와 밀가루, 콩가루 혹은 돌가루(석회, 사암, 대리석), 모래, 분필가루 등이 포함된다. 꽃과 꽃잎, 나뭇잎 등을 비롯해 지역에 따라 톱밥, 강황, 소금, 조개, 과일, 야채, 비즈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된다.(Robinson, 2007) 전통적으로 랑골리의 주재료들이 주변 자연으로부터 획득이 용이한 까닭에 경제적인 빈부차를 막론하고 모든 가정에서 랑골리의 창작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이는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로운 삶을 의미하며 랑골리가 서민들의 대중적인 민속예술로 수 천년을 넘어 지속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랑골리의 중요 요소인 우주드헤르미타의 대부분은 자연에서 찾은 모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꽃, 덩굴, 잎, 나무, 과일, 물고기, 소라껍질, 앵무새, 백조, 공작과 코끼리 등의 동물을 비롯해 힌두 신과 여신들은 태양과 달 혹은 고유한 동물로 현현한다. 힌두인들에게 자연물은 신들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명상을 위한 성스러운 장소인(Mookerjee, 1985) 동시에 자연과의 조화는 힌두교의 기본 신념으로 힌두 성전인 리그베다(Rigveda)에는 모든 자연의 힘을 살아있는 신의 힘으로 숭배한다.(Lal, 2001) 즉 힌두교의 핵심사상은 모든 생명체의 일체감을 인식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의 근원인 '브라만'은 모든 생명의 모체이자 통합체로 힌두인들은 식물, 동물, 인간 모두가 이 우주적 생명의 일부로 상호연관성에 의해 근본적으로 같은 본질로 여긴다. 전통적인 랑골리를 그리는데 사용되는 쌀가루 역시 개미나 새, 벌레 등의 작은 생명체에 대한 보시의 의미로 함께 공생한다는 자연숭배와 생명존중 사상의 반영을 나타낸다. 그야말로 랑골리는 자연의 살아있는 생명체를 존중하는 자연친화적 서민예술의 결정체인 셈이다.

5. 결론

인도의 민속미술인 랑골리는 삶의 모든 측면들이 하나로 융합되는 역동적인 통일성과 더불어 개인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경지에 이르게 한다. 랑골리를 그리는 동안에는 우주가 진화해온 단계를 되밟아가는 과정을 통해 생명에너지를 집중하도록 유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주의 균형과 완전한 세계를 표현하는 종교적 도상으로 자아를 깨닫는 힌두사상의 총체적

표상을 담고 있는 랑골리의 도상적 표현과 특성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랑골리는 첫째, 대극성의 합일에 의한 구상적 표현으로 우주형상의 종교적 상징성의 특징을 지닌다. 둘째, 랑골리는 평온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힌두 여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다르마' 수행의 일부로서 여성들만이 랑골리를 그릴 수 있다는 성적 제한성과 아울러 쌀가루를 이용해 해뜨기 전 랑골리를 완성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보존이 불가능한 일회성 민속미술의 시·공간적 제한성을 지닌다. 셋째, 랑골리의 재료들은 자연으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는 요소들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주요 재료인 쌀가루는 작은 생명체에 대한 보시의 의미로 생명존중 사상을 담고 있으며 랑골리의 테마들 또한 자연물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자연 친화성의 서민대중예술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도에서는 랑골리 디자인의 3D 효과를 위해 크리스탈 소금(Crystal Salt)을 사용하거나 간단한 모형 틀과 일회용 스티커 등이 활용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벽과 바닥이 아닌 컴퓨터 바탕화면 이미지로 랑골리가 대체됨으로써 점차 고유의 전통성을 상실하고 있는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랑골리의 도상적 표현에서 랑골리를 활용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세계적인 오리엔탈 열풍과 더불어 랑골리의 전통문양을 본뜬 원형 러그(rug)와 디자인 소품들이 세계 유명디자인들에 의해 새롭게 발굴됨으로써 랑골리의 현대적 의미의 발전방안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랑골리는 단순한 미적예술이 아닌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힐링 아트(healing art)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트를 통한 다양한 패턴 구성의 랑골리는 집중력과 인내심, 상상력을 동반한 창의적 미술 감각은 물론 과학, 수리적 사고력이 함께 동반되는 힐링 아트로의 수행이 가능한 예술 교육적 기능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체계화하여 랑골리 도상의 보다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분석을 통하여 랑골리를 창의적인 예술교육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범위를 보다 확대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난희 (2012). 한국 패션에 나타난 한국과 인도 전통문양비교. 『한국디자인포럼』, 35, 395-404.
- 박미성 (2008), 분홍색의 상징적 이미지에 관한 의

- 미. 『한국색채학회지』, 22(4), 11-19.
- 배연호 (2013.03.19). 콜라를 아시나요, 인도미술박물관 교재개발. 「연합뉴스」
- 하진희 (2010). 『인도 민화로 떠나는 신화여행』. 서울: 인문산책.
- Keilhauer, Peter & Anneliese (1983). Bildsprache des Hinduismus, 전재석 역 (1994), 『힌두교의 그림언어』. 서울: 동문선.
- Lal, Vinay (2001). Introducing: Hinduism, 박지숙 역 (2005), 『힌두교』. 서울: 김영사
- Lyntion, Lynda (1995). *The Sari*. London: Theames and Hudson.
- Mookerjee, Ajit (1985). Ritual Art of Indi, 최병식 역 (1995), 『인도 종교미술』. 서울: 동문선.
- Robinson, Thamburaj. (2007). Extended Pasting Scheme for Kolam Pattern Generation, *Forma*, 22, 55-64
- Scholz, Werner (2000). Hinduismus. Originalausg. 황선상 역 (2007), 『힌두교: 한눈에 보는 힌두교의 세계』. 서울: 예경.
- Selvamony, Nirma (2006). *Kalam as Heterotopia*. Chennai, India: National Folklore Support Centre.
- Siromoney, G., Siromoney, R., Krithivasan, K. (1973). Picture Languages with Array Rewriting Rules, *Information and Control*, 22, 447-470.
- Siromoney, Rani & Krithivasan, Kamala. (1972). Abstract Families of Matrices and Picture Languages, *Computer Graphics and Image Processing*, 1, 284-307.
- Yanagisawa, K. & Nagata, S. (2007). Fundamental Study on Design System of Kolam Pattern, *Forma*, 22, 31-46.
- Yuktaka Ishimoto (2006), Solving Infinite Kolam in Knot Theory, *Forma*, 22, 15-30.
- Rangoli (2012.11.06), 「Indiatoday」
- Rangoli: An Auspicious Symbol(2007.11.06), 「Rediff News」
- CMI. (2013.7.20), <http://www.cmi.ac.in>
- Culturalindia.(2013.6.6), <http://www.culturalindia.net>
- Harekrsna. (2013.7.4), <http://www.harekrsna.com>
- Ikolam. (2013.3.20), <http://www.ikolam.com>
- Kamat. (2013.5.4), <http://www.kamat.com>